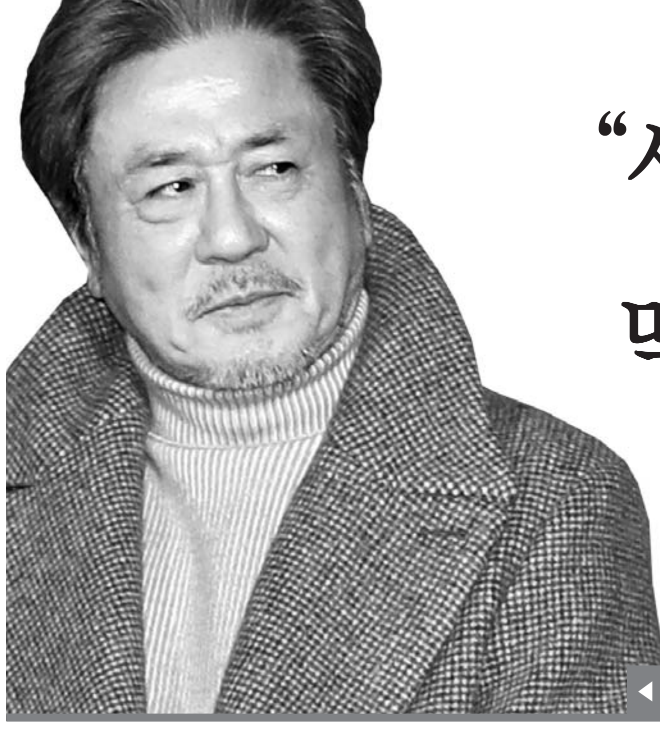

“세종과 장영실 우정 딱 우리 같았을걸요”

◀ 장영실役 최민식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 세종役 한석규 ▶

동국대 연극영화과 선후배 사이
‘넘버3’ ‘쉬리’ 이후 20년만의 재회
세종대왕·장영실 숨겨진 이야기 다뤄

최 “좋은 동료 다시 만나 작업하니 행복”
한 “같은 꿈, 같은 연기관 … 재회 기다렸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꿨던 동지이자 친구, 영원한 파트너였던 세종과 장영실, 두 분의 관계가 마치 우리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천문 : 하늘에 묻는다’에 출연한 최민식과 한석규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27일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이 영화 제작보고회서다.

1997년 ‘넘버3’와 1999년 ‘쉬리’ 이후 20년 만에 한 작품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스크린 밖에서도 남다른 우정과 호흡을 과시했다. 이날도 둘은 마치 만담하듯 대화를 편하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

최민식은 “(한) 석규를 오랜만에 봤는데, 보자마자 옛날로 돌아갔다. 마치 ‘쉬리’ 이전에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신기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동국대 연극영화과 선후배다.

최민식은 “그동안 한눈 안 팔고 한동네에서 뒹굴다 보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같은 작품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세월이 흘러도 좋은 사람, 좋은 동료를 다시 만나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며 웃었다.

“우리는 성장기부터 50대 후반까지 서로서로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한명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잘나갈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한석규 역시 “민식이 형님과 저는 나이 20세를 전후해 연기라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연기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서 “그동안 한 작품에서 만나기를 기다려왔다”고 화답했다. 한석규는 최민식에 대해 여러 차례 “좋은 사람”, “굿맨”이라며 치켜세웠다.

‘천문’은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팩션 사극’이다.

조선 최고 과학자로 꼽히는 장영실은 본래 부산 동래현의 관노였다. 타고난 재주 덕분에 세종의 눈에 들어 정5품 행사직을 하사받는다. 이후 둘은 20년간 함께 하며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의기를 만드는 등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그러나 임금이 타는 가마 안여(安輿)가 부서지는 사건으로 장영실은 곤장 80 대형에 처하고, 궁 밖으로 내쫓긴다. 그 이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최민식은 장영실을, 한석규는 세종을 각각 연기했다.

최민식은 장영실에 대해 “자신을 면천해주고, 능력을 백분 발휘하게 해준 세종을 흠모하고 존경하며 굉장히 따랐을 것 같다”며 “그러면서도 과학자로서 거침없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했을 것 같다. 그런 타고난 순수함과 학자·발명가로서 지적인 면을 겸비한 캐릭터로 생각하고 연기했다”고 되짚었다.

2011년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괴짜 세종’을 연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세종을 연기한 한석규는 “영화 속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가 마치 (최민식) 형님과 저와의 관계 같다”면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남들이 보면 엉뚱하게 느껴질 정도로 천진난만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장영실은 세종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 영원한 파트너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함께 연기한 두 사람은 연기 호흡에 대해 “좋았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고 떠올렸다.

허진호 감독은 “촬영장에서 두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감독임을 잠시 잊고, 푹 빠져있을 때가 많았다”고 전했다.

‘덕혜옹주’ 이후 3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허 감독은 “세종과 장영실은 동지이자 친구였는데 갑자기 ‘안여 사건’으로 장영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면서 “세종은 뛰어난 신하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장영실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고 소개했다. 영화는 두 사람의 업적과 함께 끈끈한 우정 등을 묘사한다.

/연합뉴스

바이브, 박경 고소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혐의

바이브 박경

남성 듀오 바이브가 자신들을 실명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27)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바이브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박경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저나인은 박경과 그 소속사에 지난 25일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는 “마치 바이브가 진짜 사재기를 한 것처럼 특정한 댓글 및 커뮤니티, SNS 등의 게시글과 댓글, 아티스트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악플 등을 작성한 악플러 역시 법적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재기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며 의혹에 대한 부분도 모두 사실이 아니기에 법적 고소 및 조사 절차를 통해 명백히 소명할 것”이라며 “신용과 명예가 걸린 이번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번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위해 사재기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박경은 지난 24일 SNS에 바이브를 포함한 선후배 가수 6명(그룹 포함)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경에게 직격당한 6명 모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고, 바이브가 실제 고소에 나섬에 따라 가요계의 고질적 의혹인 음원 사재기 문제를 둘러싸고 가수들 간 이례적인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동백꽃 필 무렵 스페셜(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꾸러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쥐라기 캅스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5 55 숲 속 친구 스토니즈			00 뉴스브리핑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호기심대장 카토 55 MBC가을맞이 가곡의 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남도 전통시장 푸드쇼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갤럭시웨폰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맨 인 블랙박스(재) 20 돈 워리 스쿨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스페셜	05 지역MBC UHD공동기획 10부작 포구만리	00 시크릿 부티크
11	35 UHD 숨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10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라이프 오브 사만다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드림스컴트루 프로젝트 최고의 하루 with 프렌즈	10 나이트라인 40 전국 TOP 10 가요쇼(재)

EBS1

07:00 출동! 슈퍼윙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특집다큐
광화문 광장, 도시의 심장을 바꾸다
13:00 다큐 시선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4:5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5:10 출동! 슈퍼윙스(재)
15:25 트리푸톰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16:10 예술아 놀자
16:25 페파 피그(재)
16:40 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뭐든지 뮤직박스
17:30 페파 피그(재)
17:45 올리 앤 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4남매 쇼
20:30 자이언트 펭TV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미지의 섬, 솔로몬제도
-다이내믹 남태평양〉
21:30 한국기행
〈김치 대첩 4부
러시아 새댁, 첫 김장 하는 날〉
21:50 다큐 시선
22:45 펫하트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 (음 11월 2일 己巳) ☎ 010-9790-8237

子 36년생 전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48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자. 60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72년생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확실히 전환해 보자. 84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사소한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5, 86

丑 37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49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해도 된다. 61년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파장은 대단할 것이다. 73년생 파격적인 국세이니라. 85년생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97년생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96, 23

寅 38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50년생 원만한 정도가 최적의 국량이니라. 62년생 주변인의 덕분에 호강을 하는 국면이다. 74년생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차원이 달라질 것이니라. 86년생 방치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화근이 될 수 있느니라. 98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2, 55

卯 39년생 성사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니 최선을 다 하라. 51년생 고난은 삶을 단련시켜 줄 것이다. 63년생 대사를 도모하는 판국이 펼쳐지겠다. 75년생 복잡다단함을 잘 정리할 수만 있다면 대국을 이룰 것이다. 87년생 처음 마음먹었던 목표에 조금씩 접근하는 양태이니라. 99년생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행운의 숫자 : 68, 66

辰 40년생 솔직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52년생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64년생 실효성을 타진해 보자. 76년생 의외의 요인에 의한 차질이 보인다. 88년생 말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00년생 녹슬지 않도록 늘 갈고 닦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18, 12

巳 41년생 단번에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예의 주시 해야겠다. 53년생 혼자만의 곤혹스러움이 보인다. 65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 되면서 복잡해지기만 한다. 77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효과도 굉장하다. 89년생 참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01년생 가까이에 노출되어 있으니 금방 눈에 띄리라. 행운의 숫자 : 28, 93

午 30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다. 42년생 실효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쾌거가 있다. 54년생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무리가 없다. 66년생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니라. 78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90년생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3, 87

未 31년생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걸려 있다. 43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55년생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있으면 되느니라. 67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난처해지리라. 79년생 감미로운 기쁨이 있겠다. 91년생 아무리 좋더라도 지나치다 보면 분명히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65, 09

申 32년생 생산적인 국면으로의 전환과 운용이 절실하다. 44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56년생 실제보다 훨씬 돋보일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68년생 완벽하지 않다면 불리하다. 80년생 시간을 잘 활용하라. 92년생 탈은 없을 것이니 현태를 유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7, 76

酉 33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5년생 확실히 분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57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69년생 있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81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93년생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니 인과응보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1, 90

戌 34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46년생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니 명심하라. 58년생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유익하다. 70년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어도 지리멸렬하다면 미련을 버리도록 하자. 82년생 갑자기 사라지리라. 94년생 실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4, 75

亥 34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46년생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니 명심하라. 58년생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유익하다. 70년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어도 지리멸렬하다면 미련을 버리도록 하자. 82년생 갑자기 사라지리라. 94년생 실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4, 75